

총장칼럼

‘반값’, ‘공짜’

도미노를 경계한다

김희수 | 건양대학교 총장



얼마전 일부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 장들이 연이어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어 등록금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상이다.

지난 9월 새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내년부터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이번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장들도 시립 혹은 도립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압력(?)을 받고 있어 바야흐로 대학가에 ‘반값’ 혹은 ‘공짜’ 등록금 도미노가 몰려올 현상이다.

지방에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같은 주위의 움직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얼마전 교과부에 의해 두 개의 대학이 퇴출당하고 또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감사한 중간 결과라며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예결산 뺨뺨기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이란무하고 있다고 발표한 보도 등을 접하면서 솔직히 쥐구

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전재산을 투자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보겠다고 대학을 설립하여 불철주야 뛰어난 결과가 이처럼 “염불보다 잣밥에만 더 관심이 있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대학운영자가 ‘파렴치한’으로 매도되는 현실에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감안하여 3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동결해오면서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투자는 해야 하며 또 각종 물가 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재단의 수익분야에서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어렵게 재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

이라는 몽둥이를 휘둘러대며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대학들은 문제가 큰 대학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그같은 선동적인 행동 때문에 가장 두터운 신뢰감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대학과 학부모, 대학과 학생들 간의 관계가 불신과 각종 의혹으로 가득차게 된 현실을 어떻게 치유하며, '반값' 혹은 '공짜'를 하지 못하는 우리 대학의 현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큰 걱정으로 다가와 있다.

지난달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도 별로 큰 기대는 못하게 않고 있다. 정부에서 예산 1조 5천억 원을 책정하여 내년 신학기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경감해주겠다는 방안으로 거기에 대학의 자구노력 7천5백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조 2천5백억원을 내년 신학기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경감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2조 2천억 원이면 가히 천문학적 액수라고 할 만큼 큰 액수다. 우리 정부 전체의 1년 예산이 약 300조 원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이나 통일외교 예산이 각각 1% 정도에 해당하는 3조원 남짓한 현실이고 보면 등록금 보조에 2조원 이상을 쓴다는 것은 파격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규모의 예산이라면 상당히 큰 일들을 벌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장 실적이 나타나지도 않는 대학생 등록금 경감에 쓴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큰 부담에 비해 막상 낮아지는 등록금 액수를 보면 그 대책의 효율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소득 7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평균 22% 경감”이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 학기 350만원 등록금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7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달초 열린 대교협임시총회에서도 각 대학들이 형편에 따라 ‘평균 5% 인하’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제는 대학교육 조차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본래 수월성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도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기 보다는 장학 증액에 더욱 주력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반값’ 혹은 ‘공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논쟁 등 정치권의 복지논란에 대학교육문제까지 뒤흔들려서는 안된다.

세브란스 의과대학(현 연세대학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전구호병원 및 대전보건의료재단 소장, 미국 뉴욕 세인트 프랜시스병원 인턴, 인천기독병원 안과과장,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외래교수 등을 거쳤으며, 학교법인 건양학원 이사장, 대한안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양대학교를 설립하고 건양대학교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건양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